

완성차 생산 국내 2위... 부품업체 부가가치 생산은 전국 1.4%

실속없는 광주 자동차 산업,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만이 실 길

기아차광주공장 1차협력사, 51% 수도권에 32% 영남권에 100만대 생산엔 매출 2배...정부·정치권·현대차 설득 관건

조선, 철강, 반도체, 스마트폰 등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던 산업들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선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공을 들여온 광주가 집중 견제를 당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광주는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완성차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이긴 해도, 돈이 되는 부품산업 등이 열악한 탓에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빈강정'이다.

특히 낙후도마저 심각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마저 빼앗기거나 밀릴

경우 광주의 미래는 우울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에 광주 시민이 민감한 이유다.

◇전국 두번째 자동차 생산도시의 초라한 현실=기아차 광주공장은 현대자동차가 1998년 아시아자동차(1965년)를 인수해 설립했다.

2013년 연산 62만대 생산라인 확충으로 국내에서는 울산(153만대)에 이어 제2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도시다.

생산차종 대부분은 디젤차량이며, 수출용 차량이 총 생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도 8조원 규모로 광주지역

총생산의 30%를 웃돌 정도다.

하지만 내실은 민망할 정도로 실속이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무역협회,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가가치 생산규모는 1조400억원으로 전국의 1.4%에 불과하며, 경기(24.4%), 경남(12.9%), 경북(10.5%), 울산(8.3%), 충북(4.2%)에 이어 7위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부품 종사자수 비중은 더 심각해 겨우 3.1%로 전국 자치단체 중 11위다.

자동차 부품업체수도 208개로 전국 10위 수준이며, 특히 종사자수 50인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가 181개(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역세성 때문에 광주 업체들은 자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겨우 자체 부품중심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만 형성돼 있다.

결국 기아차 광주공장의 1차 협력사 중 50.9%는 경기·인천권에 있으며, 영남권

31.7%, 호남권은 17.4%에 불과하다. 광주에는 공장만 있고, 돈 되는 부품산업은 타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고급 연구개발인력도 2291명으로, 전국 3만2663명의 7%수준이다.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만이 실길=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시설 구축에 주력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익성 때문에 수도권과 타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광주로 몰려오는 구조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빛그린국가산단과 진곡산단에 8347억원(국비 5865억원, 시비 1833억원, 민자 649억원)을 투입, 자동차 전용 임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생산할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100만대 생산기지가 조성되면 자동차

관련 매출액은 현재보다 2배 많은 16조원대로 급상승하고, 2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240여개의 수도권 협력업체의 이전이 예상되며, 고부가가치 부품 산업인 엔진 관련 제작 산업이 광주로 옮겨오게 된다.

◇정부, 정치권, 현대차 설득이 관건=광주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로 광주만의 입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부와 정치권, 현대차그룹을 설득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공장은 단순한 기업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기아차 광주공장의 근로자 1명당 생산대수는 전국 기아차 공장 중 1위이며, 자동차 인프라가 뛰어난 것도 광주의 장점이다.

광주에는 과학기술원과 그린카부품산

업진흥재단, 차세대전장부품 자동차센터, 하이테크 금형센터 등 수많은 연구 및 지원기관이 들어섰다.

또 광주·전남은 자동차 계열 고교와 전문대학이 20개교에 이를 정도로 생산인력배출 시스템도 안정적이다.

민선 6기 운영현 광주시장은 자동차 산업을 신선했고, 노·사·민·정 협약체 구성을 진행하는 한편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박병규 전 기아차 노조위원장을 초대 단장으로 선임하는 등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광주 광산갑)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과 국회 예결특위 장병완(광주 남구)의 원도 전후방에서 집중 지원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대구 엑스코에서 '광주~대구 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달빛동맹 4개 항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광주시 제공>

윤장현-권영진 시장, 대구~광주 내륙철도 조기 건설 건의 등 4개항 합의

민선 6기 광주시와 대구시가 광주~대구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하는 등 '달빛동맹' 강화에 나선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대구 엑스코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 등 4

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대구~광주 내륙철도(191km·4조8987억원) 조기 건설을 비롯한 광주 5·18민주운동기념식,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식에 양 시장 상호 방문 정례화, 시민의 날(광주 5월 21일, 대구 10월 8일) 사절단 상호 방문, 양 시·도

간부 및 각계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달빛동맹추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윤장현 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달빛동맹'이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동반 성장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으며, 양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009년 7월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해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험? 헌신?...동서양의 책임은 여인들



(89) 책 읽는 여자

서양에서는, 원하는 책을 당당하게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여자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

수태판 불만의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화첩에서도 "책을 통해 가정이라는 좁은 세계를, 상상력과 지식으로 이루어진 무한한 세계와 맞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순간 여자들은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가정에 대한 순종을 벗어난 지고 독립적 자존심을 얻었기에 여자들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책 읽는 '위험한' 여자들이 많았던지 서양미술에서는 13세기부터 현재까지도 책 읽는 여자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해진다.

우리 한국 미술에서 책 읽는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건하다.

17세기부터는 많은 여성들이 한글로 된 '규중요람' '내훈' '삼강행실' 등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읽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까.

사대부가의 여성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자신보다 어린 남편을 도와 과거 급제 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편을 공부시키면서 스스로 자신의 학문세계를 이루기도 했던 조선 시대 여성의 유전자 자녀 교육을



윤덕희 작 '독서하는 여인'

위해 헌신하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윤덕희(1685~1766)의 풍속화 '독서하는 여인'은 여성 교육에 관한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는 그림으로 짐작된다.

고운 햇볕 아래 단정한 차림새의 여인이 탁자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무릎에 펼친 책을 한 자 한 자 짚어가며 읽는 모습이 지성적으로 보인다.

풍속화의 선구자였던 공재 윤두서의 아들답게 윤덕희는 자신이 속한 사대부 가정의 독서하는 여인을 직접 보고 묘사했을 것 같다.

현재 광주국립박물관에서는 '공재 윤두서 서거 30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그 전시를 행복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은 한 부분 윤덕희의 공로이다.

윤덕희가 부인의 화풍을 성실히 따름과 동시에 공재의 화화를 모아 화첩으로 정리하여 후세에 전한 위업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보배섬 지도
대한민국속문화예술특구

2014 제39회 군민의날
/진도아리랑축제

진도문화예술제

Jindo Culture and Art Festival / 珍島文化藝術祭

2014. 10. 30. 목요일 - 11. 3. 월요일 (5일간)
진도읍 철마공원/향토문화회관

예술의 영원한 고향 진도, 진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The Permanent home of the Arts, Jindo waits for you.
艺术的永久之家—珍島、等您來!
芸術が永遠なる故郷の珍島、珍島が皆様をお待ちしています。

가수 김장훈 나눔 콘서트
-11. 1. (토) 7시 철마공원
-11. 2. (일) 12시 진도읍 조그리 장터

주최 / 진도군
주관 / 진도예총
후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문화예술재단)
전라남도교육청

협찬업체 / 진도농협
서진도농협
진도군수협
진도군산림조합
진도쌀산업농축미유통법인
동구엔지니어링